

“한글창제와 더불어 시발된 시조는 우리겨레 고유의 정형 시로서 민족과 함께 해온 민족의 시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먹고살기 바쁜 탓도 있었지만 서구지향적으로 외래문물 받아들이기에만 바빴습니다. 이제는 국민소득 1만 불시대이니 정신문화개발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시조짓기는 사고력을 깊게 하고 사물보는 눈을 틔워줍니다. 거칠고 예민한 국민의 정서 순



온겨레 시조짓기추진회 정완영 회장

“시조는 사고력 깊게하고 사물보는 눈 틔워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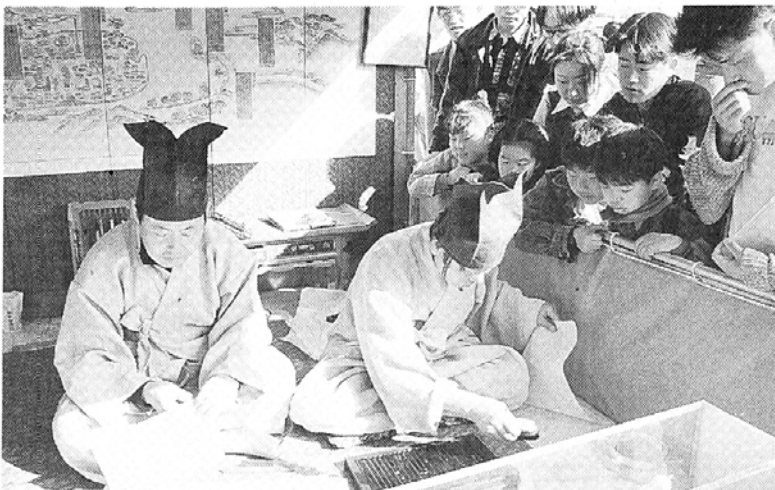
화와 함양을 위해 전국민 시조짓기의 생활화를 주창하는 바입니다.”
문학의 해를 맞아 우리 고유의 시가인 시조를 부흥시켜 전국민이 시조를 짓고 애송하는 운동을 펼치는 취지의 ‘온겨레 시조짓기 추진회’가 정식 출범했다. 초대회장이자 선임된 원로 시조시인 정완영씨(78)는 “시조는 45자 안팎의, 기승전결이 완벽하고 상징과 압축이 뛰어난 정형시로 누구든지 쉽게 배울수 있다”며 이를 위해 ‘먼저 초·중·고교 교과서와 ‘시조작법’을 게재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온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각급 학교(고등학교 대학교)진학시험에 시조짓기가 출제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

가겠다고 한다. 추진회는 또한 각 기업체 및 공공단체 연수시 시조짓기강좌를 배정토록 해 시조짓기 운동을 사회적으로 펼쳐나가며 아울러 전국 규모의 겨레시 백일장도 기획하고 있다.
‘온겨레 시조짓기 추진회’에는 운영위원장 이상범시인, 발간인에 오현성우 이두 정유 스님, 김일각, 경철씨 등 불교계 시조시인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오현 정유 청화스님 등 많은 스님들을 문단에 데뷔시킨바 있는 정완영회장은 “시조와 불교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시조부흥과 함께 전 불교인들이 동참하는 ‘불교시조문학회’ 발족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청주인쇄문화축제

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쇄문화축제 첫날 현장. 충북 청주시는 청주가 ‘세계 인쇄문화의 메카’임을 알리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한달간 흥덕사지(사적 제315호) 경내에 위치한 청주 고인쇄박물관에서 제2회 인쇄문화축제를 열고 있다.
독일의 구텐베르크인쇄박물관과 생략을 이루는 동안 최초의 전문 인쇄박물관인 청주 고인쇄박물관(관장 김광식) 광장에는 이 기간에 지난 2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로 지정된 오국진씨가 <직지심체요절>의 인쇄과정을 직접 소개하



◇지난 1일 무형문화재 금속활자장 오국진씨(사진 오른쪽)가 청주 고인쇄박물관 광장에서 금속활자 제작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선조들 인쇄문화 재현

28일까지 흥덕사지 박물관서 열려

고 시민들이 찍어 보는 시연회가 열리고 있다. 또 과산 신흥전통한지 특산단지에서는 제작에 필요한 기구를 광장에 설치, 전통한지의 제작과정도 시연한다.
우리나라 활자매체의 변천을 대변하는 이 두 과정을 분취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면 <직지심체요절> 등 37점의 금속인쇄본,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본인 <무구장광다라니경>(751) 영인본, 보물 제398호인 <월인천강지곡> 등 우리 인쇄문화의 발달과정과 우수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밖에 ‘독립신문’ 발간 1백주년을 맞아 기획한 신문역사전시회도 눈길을 끈다.
청주가 이처럼 명실상부한 ‘인쇄문화의 메카’임을 자부할 수 있게 된 것은 흥덕사지가 발굴된 지난 85년부터.

무형문화재 오국진씨 ‘직지심체요절’ 제작과정 시연 불교인쇄문화 우수성 재확인... 목판다라니경등 전시

지난 72년 세계 책의 해를 맞아 열린 ‘책의 역사’ 전시회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출품한 <직지심체요절>에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었다’는 구절이 발견되면서 흥덕사의 위치에 대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고, 85년 청주시 운현동 택지개발공사중 ‘흥덕사’라는 명문이 새겨진 유물 2점이 출토되면서 이곳이 세계 최초 금속활자가 만들어진 곳으로 확인돼 92년 철물보 모신 금당과 고인쇄박

고 고계에서조차 방대받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게 소설을 쓰게 됐다는 김씨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고려사’ ‘청학집’ 등 사료를 샅샅이 뒤졌고, 순천 도선암 등 도선스님과 관련된 곳도 항토사학자들을 만났다. 도선스님을 기리는 변변한 비 하나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김종록씨는 “도선스님이 살던 시대 애가는 바로 우리시대의 애가”라며 “외세에 시달리는 요즘 도선스님은 다시 조명해야 할 선지자”라고 말한다. (속)



김종록씨 <제왕의 길>

도선국사 삶·수행 소설로

김종록씨 ‘제왕의 길’ 펴내

신라말 대 사상이며 당대의 선승이었으면서도 단지 풍수지리의 대가로만 알려져있는 도선스님(827~898)의 삶과 그 발자취를 다룬 소설이 나왔다.
<제왕의 길>로 불교문학상을 받았고 총 100만권 이상이 나간 소설 <종수>의 작가 김종록씨가 최근 도선스님의 역정을 조망한 장편소설 <제왕의 길> (태일출판사 펴)을 펴냈다.
김종록씨는 이 소설에서 혼란기에 빠져있던 신라말, 이 땅을 구제하려는 데 원력으로 선교에 달통했고 제왕화의 달인으로 큰물을 키워내려 한 도선스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스님이 화순 천불전탑 등 전국

3천8백 군대를 사람으로 비호하려고 한 이유는 원시경전에 나오는 만다라 택지법으로 길지와 흥지를 판별하고 더 나

‘고려사’ ‘청학집’ 등 사료 토대 스님의 ‘전국토 만다라화’ 원력그러

아가 흥지를 길지로 바꾸어 온 국토를 만다라화하기 위한 대원력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환경(땅)을 변화시켜 놓고 그에 따른 제왕이 나타나도록 힘써 장차 후삼국을 통일하고 불교를 이념으로 한 국가 교리를 창건하는 왕건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 스님이 풍수라는 방편을 쓴 것은 도탄



김종록씨

부처님오신날 설법자료, 홍보책자 보급안내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인등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 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서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을 할 수 있으며, 초파일 전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연등공양 이야기	수록 내용	부처님의 생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부 부처님 탄생 1 전생이야기 2 탄생이야기 3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부 부처님 출생 발원문 1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2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3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제2부 부처님 탄생 1 전생이야기 2 탄생이야기 3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제3부 등을 밝히며 1 등을 밝히는 뜻 2 등을 밝히게 된 유래 3 등의 종류 4 등을 밝히는 행사들 제4부 관불의식 1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제5부 등불공양의 공덕 1 등불공양의 공덕 2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들 3 온가사의 등공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2 등불공양의 공덕 3 온가사의 등공양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 로타리) (02)723-4306 ~ 7 FAX : 738-8682

문화소식

불교소년소녀무용단 설립
불교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불교교육연구원(원장 황학현)이 소년소녀무용단을 설립한다. 초등교 3~중학교 3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무용단은 한국무용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기지도 등을 받으며 정기발표회 해외순회 공연 등의 활동을 하게된다. 모집기간 4월 20일 문의 (02)725-7527

용천사, 선·호랑이화 특별전
신라 의상스님이 창건하신 화엄십찰 중의 하나인 용천사(청도군 각박면·

불심지심 <49>

임의 이별

橋頭柳絲絲 (교두류사사) 다리 머리 버들은 실, 실
携携征人衣 (노노정인의) 가는 님 손에서 한들 한들
來人去人此爲別 (내인거인차위별) 가는 이 오는 이 여기서 이별
柳又堪經幾人折 (류유감경기인절) 이 버들 또 몇 사람에게 꺾였나
願君早還須趁期 (원군조환수진기) 원컨대 임이여 빨리 오실 기약은
莫待此柳枯朽時 (막대차류고후시) 이 버들 마르기를 기다리지 마소

이 시는 백곡선사께서 고 이별(古離別)이라 하여 지은 시이다. 스님의 시라고 보기 어려울만큼 남녀의 이별을 애뜻하게 읊고 있다. 이것이 바로 스님이 승속을 뛰어넘는 격의의 자제가 아닌가. 정다운 이와 이별에 애뜻한 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람 사람의 당연한 정리가 아닌가. 이것이 산은 산이 아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이 시는 출세세간의 환원이 된 시다. 이 시는 버들을 이용하여 가는 이를 보내는 여인의 심정을 여실하게 묘사하고 있다.
버들은 강가에 있음이 제격이다. 흐르는 물의 유유함이 나 버들가지의 하늘거림이 바로 같은 사람의 속성으로서 물 흐르듯 지나가는 인생으로 대비되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이들의 이별에는 이 버들을 사이에 두고 애뜻한 마음을 교환하게 되었다. 첫구에 있어서 버들가지를 실로 표현한 것이 일상의 수법이기는 하지만 실 실로 표현되는 글자의 반복이 주는 의미는 시각적 효과까지도 아우를 수 있다. 그 다음 구에 있어서 바로 위구의 반복적 수사를 그대로 받아 하늘하늘함의 두 자로 반복함이 바로 이 시의 수학적 묘미이다. 가지는 머물렀을 때의 실이 이제는 가는 이의 손에 들려

한들거림의 동작으로 변하였다. 두 사람의 흔들리는 정을 말없이 표현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이 은근한 정에 매혹되게 한다 할 것이다.
이별의 장소로 강가의 나무 머리나 다리 위로 선택되는 것은 강물이라는 가로지름을 서술하였다. 이별하는 이로서는 하나의 정표가 되거나 안타까움의 상징이 되는 등 나름의 뜻이 있을지 모르지만, 버들 자체로서는 이것도 괴로운이다. 시인은 이 점에 초점을 맞춰 버들의 괴로움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별이란 한시 만났을 전제로 한다. 그러기에 떠나는 이나 보내는 이는 항상 뒷 기약을 묻게 마련이다. 이 시도 예외가 아니다. 남에게 원하는 일은 언제 다시 올 것인가 하는 기약의 약속이다. 그 약속은 되도록 짧아야 한다. 이 시는 이 점을 아주 재미있게 마무리 하였다. 되도록 빨리 오되 손에 쥐어져 있는 버들 가지가 마르기도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다. 가는 걸음을 그저 되돌리라는 것보다도 더 촉박한 표현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계간《多寶》는 현실속의 불교를 지향합니다

불·교·계·유·일·의·종·합·화·출·성·보·장·지

계간《多寶》는 정간료 1920 원 부대 동권 160 원 (1995.12)까지 4년간 발행한 잡지를 4권으로 묶은 4권본을 보급합니다.

● 정기구독 신청안내
구독료 1년(4호권) 20,000원 은행계좌입금
계좌번호 827-25-0006-047 (주) 대한불교진흥원
외계번호 199-13-02085-0 (주) 대한불교진흥원
우체번호 012245-00949-11 (주) 대한불교진흥원
출판 069-01-187161 (주) 대한불교진흥원

● 발행/보급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계간《多寶》 (전화) 02-719-1855 (FAX) 02-719-5062